

365

INVENTION

압력증기 요리기

요즘 각 가정에는 재래식 솥 대신 압력솥이 거의 다 자리를 잡고 있다. 압력솥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시간과 연료의 절약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도니 파팽이 발명한 증기찜통의 개량형이다.

파팽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가서 로버트 보일의 조수가 되었다. 그 덕분에 런던의 왕립학회인 자연과학회에 자주 드나들며 과학지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증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증기의 대단한 힘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요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연구도중 문제가 발생했다. 압력 찜통의 효력은 월등했으나, 뚜껑을 열 때 높은 압력을 받던 고온의 증기가 갑자기 새어나와 위험했던 것이다. 파팽은 곧 뚜껑의 안전장치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거쳐 압력찜통의 안전장치를 발명하는데 성공했다.

애완동물용 식용수저

애완동물용 식용수저가 여섯 살의 미국 소녀 수잔나(애칭 수지)에 의하여 발명되었다. 수지가 이것을 발명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수지는 어느 날, 자기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데 쓴 더러워진 수저를 씻으라는 엄마의 말씀에 고양이들이 먹을 수 있는 수저를 고안하기로 했다. 소녀는 수저를 닦지 않아 잔소리를 듣는 일에 지쳐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수지는 캔에서 먹이를 떼낸 뒤, 접시에 먹이와 같이 놓으면 잘 부서지는 식용수저를 발명하였다. 재료는 유아용 과자 재료를 사용하였고, 애완동물의 입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와 제조할 때의 효소냄새제거, 벼룩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숯을 첨가했다. 그리고 식욕을 돋우고 기생충 서식을 막기 위해 마늘을 사용했다. 이것들을 모두 혼합해 뼈다귀 모양을 만들어 구운 것으로 뛰어난 발명품이다.

어둠 속에서 읽고 쓰는 받침대

미국 오하이오 주의 소녀 베키 슈퍼더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도 읽고 쓸 수 있는 형광 공책 받침대를 발명했다. 이 고안은 종이 아래 얇은 발광관을 놓은 것이다.

항상 공부에 열심인 베키는 어머니가 슈퍼 안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주차장의 차 안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저녁무렵이라 주차장은 점점 어두워졌고, 베키는 '어둠 속에서도 글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소녀는 곧 형광성의 장난감에 대하여 생각했고, 그 아이디어를 갖고 집에 돌아왔다. 다음날, 베키는 형광 페인트를 사서 도화지에 칠한 다음 욕실에 가서 불을 꺼보았다. 도화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냈고, 그 위에 공책을 놓고 글을 쓰자 무엇을 쓰는지 알 수 있었다. 이 발명품은 밤에 희미한 불빛 아래서 글을 쓰는 영화평론가, 의사 등에 유용하다.